정보

Akademische Festouvertüre, Op. 80

개요
곡명: Akademische Festouvertüre (《대학 축전 서곡》), Op. 80
작곡가: Johannes Brahms (1833–1897)
작곡: 1880년 여름, Bad Ischl
초연: 1881년 1월 4일, Breslau의 Concerthaus, Breslauer Orchester-Verein 제 6회 정기연주회 , Johannes Brahms 지휘
장르 ·작품 범위: 단악장 관현악 콘서트 서곡 전곡
기준 자료: 1881년 N. Simrock 관현악 총보 초판과 Johannes Brahms Gesamtausgabe의 판본 조사 규모: 약 10분, 관현악

IMSLP 악보 ·판본 목록

Wikipedia 작품 항목

Johannes Brahms의 Akademische Festouvertüre는 Breslau 대학교에서 받은 명예박사 학위에 답하려고
쓴 단악장 관현악 서곡이다. 이 글은 합창이나 편곡을 더하지 않은 원곡 전부를 다룬다. 악곡은 끊어지지 않는 한 악장 안에 네 학생가의 선율을 들여와 마지막 Gaudeamus igitur로 마무리한다 .

대학이 기대한 답례, Brahms가 고른 노래
Breslau 대학교는 1879년 Brahms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그곳에서 음악 활동을 이끌던 Bernhard Scholz는 며칠 뒤 그에게 ‘박사 교향곡 ’을 청했다. Brahms가 이듬해 여름 Bad Ischl에서 완성한 답례는 교향곡도, 합창을 앞세운 의식 음악도 아니었다.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를 재료로 삼은 콘서트 서곡이었다 . 같은 여름에 작곡한 Tragische Ouvertüre Op. 81과는 분위기부터 대조된다. Brahms는 출판사에 Op. 80을 학생가의 흥겨운 포푸리에 비유했지만 , 실제 악곡에서는 인용된 선율 사이를 자신의 관현악 재료로 촘촘하게 잇는다.

초연은 학위 수여식 자체가 아니라 1881년 1월 4일 Breslauer Orchester-Verein의 정기연주회에서
이루어졌다 . Brahms가 직접 지휘했고, 같은 공연에서 Tragische Ouvertüre도 연주됐다. 이 두 서곡을 나란히 놓으면 Op. 80의 익살은 가벼운 장식이 아니라 제목의 ‘축전 ’을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로 들려줄지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노래하는 사람은 무대에 없지만, 당시 청중에게 친숙했을 학생가가 관현악 속에서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노래가 한 악장으로 이어지는 방법

서곡은 C단조의 조용한 현악으로 시작한다. 작품의 결말을 지배할 큰 합주를 서두에 내놓지 않기에, 첫
학생가가 나타날 때 악기 배치의 변화가 또렷하다. 세 트럼펫은 약 63마디부터 Wir hatten gebauet ein stattliches Haus의 선율을 제시한다. 이 노래는 19세기 독일 학생단체의 역사와 얽혀 있지만, 그 내력을 Brahms의 정치적 선언으로 곧장 바꿔 읽을 근거는 없다. 서곡 안에서는 노래의 구절이 금관 신호처럼 들리며, 시작의 어두운 현악과 다른 공적인 목소리를 만든다.

이후 약 129마디부터 현악에 나타나는 넓은 가락은 학생 의례 노래 Alles schweige! 가운데 “Hört, ich sing das Lied der Lieder”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Der Landesvater라는 의례의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이는 별도의 다섯 번째 노래가 아니다. Brahms는 노래 전체를 재현하는 대신 한 대목을 떼어 서곡의 노래하는 선율로 키운다. 첫 노래를 트럼펫이 또렷하게 알렸다면, 두 번째 노래는 현악의 긴 호흡으로 흐른다.
인용곡마다 악기와 길이를 달리한 덕분에 선율의 교체가 곧 음악의 전개가 된다.

그 서정적인 흐름에 곧 신입생 노래 *Was kommt dort von der Höh?*가 끼어든다. 약 156마디 이후 두 바순이 선율을 맡고, 비올라와 첼로의 엇박 반주가 걸음걸이를 비튼다. 이 노래가 흔히 Fuchslied라고도
불리는 까닭은 신입생을 가리키는 학생들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선 두 인용이 각각 금관의 의례적 울림과 현악의 긴 선율을 열었다면, 바순의 낮은 음색은 학생들의 장난스러운 장면을 앞으로 끌어낸다. 그러나 음악은 새로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멈춰 서지 않는다. 인용 사이의 움직임과 되돌아오는 동기들이 빠른 변화 속에서도 하나의 서곡을 유지한다.

마지막 Gaudeamus igitur는 약 379마디부터 Maestoso로 등장한다. 라틴어 가사의 첫머리는 젊은 날을 즐기자는 뜻이지만, 노래에는 대학과 교수들에게 축원을 보내는 구절도 있다. 그래서 이 선율은 학생들의
노래인 동시에 학위의 자리와도 어울린다. Brahms는 금관과 목관이 밝힌 선율 아래에 빠르게 엇갈리는
현악을 놓고,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까지 합류시키며 끝을 확장한다. 결말의 힘은 익숙한 노래를 크게 연주한 데만 있지 않다. 앞에서 나뉘어 들리던 악기군이 마지막 노래의 합주로 모이는 과정에도 있다.

관현악의 균형과 공연에서 생기는 선택

이 서곡은 밝은 끝부분 때문에 금관과 타악기가 기억에 남지만, 노래가 처음 들리는 장면마다 주도권을 가진 악기군이 다르다. 트럼펫의 Wir hatten gebauet, 현악의 Alles schweige!, 바순의 *Was kommt dort von der Höh?*를 각각 선명하게 들려주어야 마지막 전 합주의 대비가 살아난다. 악기군이 교대하는 사이에도 안쪽 성부가 이어지므로 , 선율만 도드라지게 하는 것과 전체 흐름을 살리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Scottish Chamber Orchestra와 이 작품을 연주한 지휘자 Robin Ticciati는 널리 알려진 주제 아래에서
움직이는 성부를 들리게 한 경험을 말한다. 그는 종결부의 트라이앵글이 최종 해결을 기다리는 G의 지속음
위에 들어오는 순간을 특히 중시했고, 단원들과 심벌즈 ·큰북의 재질과 울림도 시험했다. 이는 악보의 음을

바꾸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편성 안에서 기대감과 축제의 거친 질감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한 사례다 . 반대로 Ken-David Masur가 Milwaukee Symphony Chorus를 위해 학생가 가사를 덧붙여 합창이 끝의 *Gaudeamus*에 합류하도록 만든 공연은 원곡 바깥의 편곡이다 . 원래의 관현악 서곡에는 합창이 없다 .

출판 정보와 자료

N. Simrock은 관현악 총보를 1881년 7월에 출판했다 . 초판은 71쪽이며 판번호는 8187이다 . Brahms가 직접 만든 피아노 네 손 편곡은 그보다 일찍 준비됐다 . 1880년 9월에는 Brahms와 Clara Schumann이 함께 연주했고 , 연말에는 선인쇄물이 지인들에게 전해졌다 . 별도 출판물인 네 손 편곡의 초판은 1881년 3월경으로 기록된다 . 그러므로 ‘1881년 7월 초판 ’이라는 날짜를 두 악보에 모두 적용할 수는 없다 .

관현악 자필 총보는 Staatsbibliothek zu Berlin에 , 네 손 편곡 자필은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에 보존되어 있다 . 현재는 자필 · 필사본 · 초판을 대조한 비평판도 이용할 수 있다 . 네 손 편곡은 관현악 원곡의 성부와 전개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지만 , 본문의 편성과 연주 설명은 관현악판을 기준으로 한다 .

소요 시간

전곡은 보통 약 10분이 걸린다 . 네 학생가의 출현 위치는 악보의 마디로 짚을 수 있지만 , 실제 연주에서 각 선율에 도달하는 시각은 지휘의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

편성

악기군	관현악판 편성
목관	Piccolo, Flöte 2, Oboe 2, Klarinette 2, Fagott 2, Kontrafagott
금관	Horn 4, Trompete 3, Posaune 3, Tuba
타악	Pauken, Große Trommel, Becken, Triangel
현악	Violine I·II, Viola, Violoncello, Kontrabass

Brahms는 학생가를 성악 없이 악기들의 선율로 들려준다 . 트럼펫이 한 가락을 선포하고 바순이 다른 가락을 익살스럽게 내밀며 , 현악이 그 사이와 끝부분을 잇는다 . 큰 편성은 처음부터 동시에 울리기보다 , 마지막 노래에 이르러 축전의 규모를 드러낸다 .

주요 레코딩

1927년 Otto Klemperer가 Berliner Staatsoper의 관현악단과 녹음한 연주는 초기 전기 녹음 시대의 기록으로 , Naxos Historical 8.111274에서 들을 수 있다 . MusicWeb International의 Rob Maynard는 여러 부분이 떨어진 일화처럼 들리기 쉬운 곡을 Klemperer가 하나로 엮어서 마지막 *Gaudeamus*도 덧붙인 결말처럼 들리지 않게 한다고 평가했다 . 2012–13년에 녹음된 Riccardo Chailly와 Gewandhausorchester

Leipzig (Decca 478 5344) Simon Thompson

- Johannes Brahms Gesamtausgabe, Michael Musgrave : , ·
- Brahms-Institut : Simrock ·
- Edition Eulenburg, Klaus Döge : ,
- LA Philharmonic , Breitkopf & Härtel : ,
- David Nice Robin Ticciati , Milwaukee Symphony Orchestra Ken-David Masur :
- Rob Maynard Klemperer , Simon Thompson Chailly :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29 UTC by
Updated 2026-10-04 10:05:29 UTC by